"전염병 예방·치료 위한 백신 개발에 힘쓰고 싶어"

〈14〉 이화여대 화학신소재공학과 정유빈 씨

과학인 미래리더 선정…약학대학원 목표
끊임없는 연구 통해 지역발전 기여할 것

"올해 초부터 갑자기 전 인류가 생각지도 못했던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약학을 전공해 앞으로 발생할 많은 전염병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백신 및 치료약 개발에 힘쓰고 싶습니다."

전남스타 200인, 그리고 과학인 미래리더로 선정된 정유빈(여·20·사진)씨는 이화여대 화학신소재공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졸업하면 약학대학원에 진학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노력할 예정이다. 매일 새롭게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그녀는 공부하느라 한숨도 못 잔듯한 표정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어렸을 때부터 실험을 유독 좋아했어요. 위기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때 실험실 사고로 상처를 입고 정신적 충격도 컸어요. 부모님도 말리고 힘들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잘 이겨낼 것이라고 믿고 싶어요."

대학에서는 공대 6% 이내의 성적을 유지하고, 고교 때는 바이오디젤 촉매를 고체로 대체하는 연구로 전국과학전람회 특상을 받기도 했다.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꾸준한 노력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가장 존경하는 화학자는 독일의 프리츠 하버(Fritz Haber, 1868~1934년)다. 1918년 노벨화학상을 받았으며, 카를 보슈와 함께 질소비료용 암모니아의 대량 생산법을 고안해 인류의 식량난 극복에 기여한 인물이다.

"화순에 백신특구가 조성돼 있고, 전남도가 화순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의 백신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곳에서 일하면서 지역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단지 전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민들의 지원을 받게 된 것에 감사하며, 공부를 마치면 다시 고향에 내려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정씨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전남 인재임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대학원에 진학한 뒤 유학길에 오를 수도 있지만, 현재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부분은 그 다음날 채우는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고 했다.

"앞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 같아 무척 기쁩니다. 실패하더라도 도전하고 그 도전을 통해서 얻은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든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치지 않고 전라남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에이스라이온스클럽, 주거빈곤 아동 환경개선 후원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가 최근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광주 에이스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주거빈곤 아동의 환경개선을 위한 후원금 161만7500원을 전달받았다.

광주 에이스라이온스클럽은 광주 북구의 한 아동을 위해 후원금을 모았다. 이 아이는 40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에서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며 샤워 시설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후원금은 그의 안전한 주거지 마련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최한순 광주 에이스 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고 꿈을 키우는데 광주 에이스라이온스클럽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곡성우체국, 곡성 수재민에 식재료 구호품 전달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조해근) 곡성우체국(국장 박현진, 노조지부장 정종대)이 최근 곡성지역 수재민에게 된장, 고추장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등으로 구성된 구호품(2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전남지방우정청 제공〉

광주경신여고 교직원·학생 헌혈 생명나눔 실천

광주경신여고(교장 하은석) 교직원과 학생 60여명은 지난 31일 학교를 방문한 광주전남혈액원 헌혈차량에서 단체 헌혈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했다. 〈광주 경신여고 제공〉

대산청소년문학상 고등부 시 부문 동상 김세연·남아린

제28회 대산청소년문학상 금상 수상자로 고등부 시 부문에 신정연(경기 안양예고 1년), 소설 부문에 양지숙(서울 금옥여고 2년)이 선정됐다.

중등부 금상에는 시 부문 김예린(부산 용수중 3년), 소설 부문 조승재(서울 배재중 3년)가 뽑혔다.

광주에서는 고등부 시 부문 김세연(광주 서강고 3년), 소설 부문 남아린(광주 전남대사대부고 2년)이 동상을 수상했다.

주최 측인 대산문화재단(이사장 신창재)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시상 결과를 발표했다. 총상금은 1600여만원. 금상에는 장학금 150만원과 상장을 준다.

수상작은 연말에 민음사를 통해 출판하고, 본선 진출자가 등단하면 창작 장학금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목포지청장 김주택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손철호

TV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KBS 시청자 주간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KBS 시청자 주간 아침마당 -시청자, KBS를 말한다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KBS 시청자 주간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엄마가 바람났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KBS 시청자 주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기막힌 유산(재) 40 지구촌 뉴스	45 결혼계약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야생여정(재)	00 그놈이 그놈이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5 생생정보 스페셜 50 퀴즈 위의 아이돌(재)	00 12 MBC 뉴스 20 따라락 따라락 뚝딱맨 50 뽀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톡톡 보험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늬우스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0 내고향 전파 스페셜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4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스페셜(재)	00 기분 좋은 날(재)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20 공부가 머니?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KBS 시청자 주간 6시 내고향	30 KBS 시청자 주간 2TV 생생정보	20 오매! 전라도	00 불타는 청춘(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KBS 시청자 주간 앙코르 인간극장(재)	20 찬란한 내 인생 55 MBC 뉴스데스크	00 최강 1교시
8	30 기막힌 유산	30 노래가 좋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그놈이 그놈이다	30 공부가 머니?	
10	00 시사토론 '10' 50 더 라이브	40 옥탑방의 문제아들	50 PD수첩	00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내가 가장 예뻤을 때(재)	10 불타는 청춘
12	10 KBS 시청자 주간 국제공동제작 아시안 피치 천국의 정원〈중국〉	0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통합뉴스룸 ET(재) 55 KBS 재난방손센터(재)		30 나이트 라인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07:15 출동! 슈퍼윙스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꼬마 히어로 슈퍼잭
08:00 딩동댕 유치원
08:30 뽀로로 동화나라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픽시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09:30 명탐정 피트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2:25 지식채널e
12:30 클래스 e
13:00 EBS 다큐프라임(재)
13:55 미래교육 플러스
14:45 레이디버그
15:45 머털도사
16:15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30 딩동댕 유치원
16:50 해요와 해요
17:00 EBS 뉴스
17:20 야옹멍멍 귀여워2
17:30 로빈 후드
17:45 히어로 써클
18:0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
19:00 위 베어 베어스:곰 브라더스
19:30 자이언트 펭TV
19:45 극한직업 스페셜
20:35 경이로운 지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한시로드, 천하제일경〉
21:30 한국기행
〈숲속에서 삽니다〉
21:50 EBS 다큐프라임
〈생존의 비밀〉
22:45 건축탐구-집
〈웰컴 투 기적의 집〉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23:50 클래스 e
24:20 지식채널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일(음 7월 14일 丁未)

☎ 010-9790-8237

子 36년생 예의 주시하라. 48년생 자신 있게 진행해야 제대로 성공하는 법이다. 60년생 유기적인 관계가 설정되면서 발전을 열 것이다. 72년생 합리적으로 처리한다면 적폐가 해소되면서 불편함이 사라지리라. 84년생 거친 풍랑이 밀려오고 있으니 안전하게 대피하자. 96년생 소득은 있지만 알찬 결과물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39, 72

丑 37년생 방식이 변경 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속성은 대동소이하다. 49년생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해 봐야 한다. 61년생 현재 일부터 먼저 처리함이 맞다. 73년생 상대의 마음이 자신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85년생 건너야할 강에서 때맞추어 나룻배가 오는 격이다. 97년생 빈틈없이 처리한다면 위상을 갖추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3, 65

寅 38년생 대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종합적이어야만 한다. 50년생 신은 결코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 62년생 실제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74년생 근거가 없다면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 86년생 이르다고 생각할 때에 시작하자. 98년생 평생에 한 번 올까말까 하는 천재일우의 찬스가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1, 96

卯 39년생 우회적인 방법보다 직접적인 실행이 더 현명하다. 51년생 계획대로 추진해도 무방하다. 63년생 기본적인 것이 미비한 상태라면 성과가 저하 될 수밖에 없다. 75년생 대상의 선정에 따라서 천차만별할 것이니 각별히 신경 써라. 87년생 신속하고 정확해야만 한다. 99년생 겉모습은 별로지만 실상은 양호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8, 98

辰 40년생 조상의 음덕이 있으니 정성을 다하면 행운이 따르리라. 52년생 마음에 차지 않을 수 있으니 큰 기대는 하지마라. 64년생 시작은 달라도 귀착하는 바는 대동소이 할 것이다. 76년생 보는 이가 없는 곳에서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88년생 직접적으로 관련 되지 않는다면 차치해도 된다. 00년생 장고한다면 참 된 결론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46, 88

巳 41년생 곧 강풍이 불어 닥칠 것이니 우선 은신처로 피하고 보자. 53년생 사정을 고려한 다음에 결정 하자. 65년생 가까운 이로부터 새어나가고 있다. 77년생 기본적인 관리를 잘 한다면 무탈 하리라. 89년생 정도를 걸으면 봄날이로다. 01년생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04, 94

午 42년생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야 성과가 더 크다. 54년생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야 할 때가 되었다. 66년생 외출을 삼간다면 면액 하겠다. 78년생 행운의 별이 비춰오고 있으니 길하리라. 90년생 으뜸의 것으로 기준을 삼을 필요가 있다. 02년생 허점이 보인다면 즉시 보완해 둬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7, 57

未 31년생 검증되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신은 위험하다. 43년생 공감하였다고 해서 공동 행동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55년생 겉과 속이 전혀 다른 형국이로다. 67년생 싫어한다면 굳이 행할 필요가 없겠다. 79년생 효과가 미치지 않는 범위에 놓여 있느니라. 91년생 칭찬에 기뻐하지 말고 뼈아픈 충고에 귀 기울여라. 행운의 숫자 : 45, 83

申 32년생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해야 실제 상황에서 활용하는 효과가 있다. 44년생 무의식중에라도 내색해버린다면 공든 탑이 무너져버릴 수도 있다. 56년생 누구도 알지 못하는 혼자만의 곤혹스러움이 보인다. 68년생 형태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80년생 우선 적응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알라. 92년생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경사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7, 71

酉 33년생 아주 기쁜 일이 생기는 구도이다. 45년생 전례에 구애 받을 필요는 없다. 57년생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69년생 직접적으로 관련 되지 않는다면 차치해도 된다. 81년생 물심양면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93년생 반작용의 현상에 놀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4, 99

戌 34년생 소원 했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양태이다. 46년생 말썽의 소지가 있다면 아예 손대지 말라. 58년생 상대적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라. 70년생 결정적인 시기가 다가오고 있도다. 82년생 치우친다면 설득력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94년생 자체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26, 51

亥 35년생 필수적인 것이 빠져 있어서 당황하겠다. 47년생 구태의연함에 사로잡힌다면 진일보하기 어려워진다. 59년생 해 왔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71년생 가장 상식적인 방안만이 합당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83년생 현상 유지야말로 상책임을 알고 진중해야 한다. 95년생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가닥이 잡히리라. 행운의 숫자 : 34, 68